



# '불교' 영상으로 서양과 소통하다

## 국제불교영화제(BFF) 참가

기독교국가로 알려진 영국의 오늘은 전체 인구의 7.5%만이 기독교인일 뿐이다. 영주하며 시민권을 지닌 인디언의 시크교와 힌두 그리고 무슬림 신앙이 실제 영국 종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의 다양한 얼굴(The many face of buddhism)'을 주제로 영국 런던의 경제 문화 중심지에서 국제불교영화제(BFF, 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가 열렸다. 5월 7일 개막해 17일까지 총 11일간 씨티오브런던(city of london) 지구 바비칸센터(Barbican Centre)에서 개최됐다.

18개국 총 46편의 영화가 영국 문화의 예술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에서 펼쳐졌다는 것은 유럽의 문화와 종교의 주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대변해 준다. 27편의 영국 영화가 이번 영화제에 참여했으며 한국, 인도, 타케트, 몽고, 일본, 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부탄,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아르헨티나 출신의 감독과 그들의 작품들이 불교의 예술적 표현에 관한 세 차례 포럼과 함께했다. 불전설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과 극영화는 비롯해 코미디, 다큐멘터리, 스틸러 등 장르의 벽을 허물고 제작된 불교영상들이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폭넓게 수용됐다. 영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국제불교영화제에는 5000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하는 등 유럽 문화를 선도하는 런던을 흥분케 했다. 영화제를 주관한 何鴻毅家族基金(THE ROBERT H. N. HO FAMILY FOUNDATION) 책임자 로버트(Mr ROBERT H. N. HO)와 영화제 총감독 카즈오마이다는 개막식에 앞선 정찬장에서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춘 영상과 조형을 중심으로 불교문화 예술 콘텐츠를 선별했다"면서 특별히 "한국 불교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김수자의 설치미술 '연화(Lotus: Zone of Zero, 2008)'와 영화 2편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Beyond the mountain, 1991)', '마음의 고향(Hometown of mind, 1949)'을 소개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런던국제불교영화제 기간 동안 세계 최대 장식미술 전문박물관인 빅토리아&알버트박물관(V&A Museum)에서는 불교미술과 관련한 특별전이 열려 불교문화행사를 더욱 풍성히 했다.



개막작 '아시아의 등불' 상영과 라이브 공연이 함께 열렸다. 원안은 영화제 총감독 카즈오마이다. 카즈오마이다는 2003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국제불교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제의 시작을 알렸다. 영국의 젊은이(Londoner)들이 고민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감이라는 화두를 대변하듯 폐막작으로 상영한 아르헨티나 디에고라페카스 감독의 영화 'Un Buda(A Buddha)' 역시 매년 사례를 기록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의 'Dirty War(더러운 전쟁)'를 배경으로 부모를 잃은 토마스과 라파엘 두 형제의 성장과 선불교를 주제로 다룬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토마스는 코르도바 깊은 산중에 자리한 일본불교 명상센터에서 'DOJO ZEN'과 만나 영적 성장을 이룩한다. 형인 라파엘은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불교의 인연을 확인하면서 코스모스와 같은 인드라망의 경계를 경험한다.

**#내면으로의 여행(Mind the Gap)**  
한국불교에서처럼 영국에도 이미 그들의 불교가 있다. 한국의 대승불교 개념과 접근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내면에 고착된 흔들림 없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 때문이다. 그 바탕 위에서 아시아 불교는 이들에게 문화의 다양한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유럽의 정신세계에 맞춰 통섭된 '맞춤불교'는 생활불교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도가 아닌 회원 개념으로 삶 자체가 아닌 삶의 신념 원리로 작용된다. 불교적인, 불교에 의한 삶이란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깨달음의 성취를 향한 수행이 보다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영화제에 참여한 관객은 불교신도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대다수 관객은 연령 폭이 넓고 직업 또한 다양하다.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인디언으로 일본계

회사 노무라에서 근무하는 아피(Aaarti samani, Nomura, 33)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5월 30일 밤회에 참석해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달라이 라마의 저서 <The Universe in a Single Atom>(2005)을 읽고 있다.

## 18개국 46편 불교영화 영국 대표 문화공간서 상영 '호평' 유럽정신으로 통섭된 '맞춤불교' 참된 삶 살기 위한 도구



영화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영국인들.



영화 'Un Buda'의 디에고라페카스 감독이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 불교영화의 미래**  
런던국제불교영화제에서 관객의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다. 'The Dhamma Brothers(미국, 2007)'는 2002년 5월 미국 알라바마교도소의 중범죄자들에게 불법과 위법사안을 접목한 교화 활동 이후 이들의 심성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를 다룬 실험영화다. 명상프로

그램으로 4시간 동안 마음의 고요함을 체험한 이들은 그들의 범죄를 참회하게 되고 자신들에게도 순순한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확인해 간다. 감독 제니 필립스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불교에 의한 변화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고충을 토로하면서 "제작 기간 동안 재소자들의 호응과 참여가 증가하고 이들에게 부타의 명상이 희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Buddha's Lost Children(네덜란드·태국, 2006)'은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지대 마약의 길로 통하는 곳에 위치한 작은 절 이야기다. 타이복싱(무에타이) 선수 출신 승려 끄르바(KhruBha)는 아이들이 출가를 통해 마약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삶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가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마리 어린 말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100km의 여정 동안 동승들은 말을 돌보며 어려움으로 성장하는 거울로 삼는다.

한국불교영화로 상영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1991)'는 비구승 침해(최진영 분)와 비구니 묘연(김금용 분)을 주연으로 <법구경> '불타품'을 주제로 한 고은 원작의 불교영화다. 수행승에게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번뇌를 심도 있게 다루며 1990년대 지식사, 월성사 등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촬영됐다. '마음의 고향(1949)'은 한국전쟁 이전에 제작된 불교영화로 한국영상자료원 제공으로 국제불교영화제에서 수차례 상영된 한국불교영화다. 일제 해방 이후 근대 승가 문화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성도성의 일일살이를 다루면서 해방 이후 조선영화의 최고봉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귀중한 자료다.

한국불교영화는 완성도와 제작 편수는 물론이고 <심우도>를 주제로 한 듯 편향된 마무리를 보인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상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작이 기피되고 자금 부족 형태의 얇고 짧은 편편을 탈바꿈하지 않는 한 한국 불교영화에 미래는 없다. 불법이 담긴 매체도 불전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종이에 기록된 불법은 당시 최고의 매체였기 때문이다. 영상매체야말로 현 시대에 승승한 불법의 전달매체를 런던에서 개최된 불교국제영화제는 증명하고 있었다.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buddhapia.com**

## #고전과 디지털의 자유로운 교감

'기존의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영국은 몇 백년 간 이어 온 전통을 고수하는 반면 새로움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호의적이다. 이것이 현재 영국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가운데서도 불교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과거 학문 중심으로 불교를 탐미해온 영국에서 불교영화는 신선한 문화 테마로 자국된 것이다. 개막작으로 상영한 '아시아의 등불(Prem Sanyas, 1925)'은 독일과 인도에서 제작한 무성영화로 시타르 타자의 탄생과 부다가 되는 과정을 주제로 한다. 인도 전통 악기 시타르, 타블라와 클래식 바이올린, 플루트가 영상과 어우러져 라이브로 장엄한 퍼포먼스를 연출하면서 영화



왼쪽부터 한국영화 '마음의 고향'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중음(中陰)의 세계를 주제로한 조니 뎀 주연의 '데드맨'.

#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6주 ▶ 모집 인원: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100만원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일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상담**

- 불자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 자녀의 기출, 습관, 성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http://www.yumall19.com> 입니다.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비비밀보장

**숙식 제공**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으로 장엄하였으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손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 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  
크기: 8mm x 10mm x 12mm 55,000원  
10mm x 10mm x 12mm 65,000원  
12mm x 10mm x 12mm 85,000원  
흑단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항로  
(대) 26 x 16 x 10cm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을 마음대로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났어 저 나와 예뻐서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액: 농협 053-12-125418 김환영

**건강백세** 이지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복합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료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좌우시 백색(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작용하고 편안하게 알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숙의 노폐물 배출, 소화 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뻥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심, 구역,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허벅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에게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께서 체형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복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파기능기 인증, L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차폐시험,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신안출원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훈디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썩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격인선 '열침'**이 백색(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훈디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변비, 산후조리,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몸과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정수하세요.  
◆ 문의전화: **금강약들 (02)723-0099** 입금액: 농협 053-12-125418 김환영 / 입원금회도 상담 합니다.